

독도 개척 전라도인 발자취 찾는다... 호남대 탐방단 고흥서 발대식

고흥 독도 출발해 울릉도 독도까지 개척 코스 답사

19세기 말 경북 울릉도를 개척하고 독도(獨島)라는 이름을 부여한 전라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호남대학교 2019 독도 탐방단이 오는 11월 2일 고흥에서 발대식을 연다.

호남대는 독도의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독도(獨島)가 보이는 오천항에서 교직원 40여명과 송기근 고흥군수,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2019 독도의 날을 기념해 호남대 창의

융합대학(학장 송창수)의 비교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고흥 독도를 출발해 울릉도 독도까지 4박 5일간 구한말 전라도 사람들의 울릉도 독도 개척 코스를 답사한다.

독도 골든벨과 독도OX 퀴즈, 독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쳐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호남대는 2006년부터 '우리 땅 독도 특별전'을 열어 독도 지키기에 나섰다.

2008년에는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구한말(1882년) 울릉도 개척민 141



고흥 독섬. /연합뉴스

명 중 115명이 고흥과 여수, 순천 등 전라도 출신임을 밝혀냈다.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전라도 어민들이 선박을 건조하고 어로 활동을 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했음을 밝힌 연구 자료를

학계와 언론에 발표했다.

당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고흥 어민들은 고흥에 있는 독섬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독섬'으로 부르기 시작해 이후 한자식 표현인 석도(石島)와 독도(獨島)로 변천했음을 알리는 자료도 발표했다.

고흥 독도의 면적은 0.138km²로 경상도 독도(0.186km²)와 면적도 비슷하다.

호남대 관계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개척한 고흥과 순천 등 전라도인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정부 정책 방향 등 공유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18층 다목적홀에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2014에 처음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3기가 활동하고 있다.

서포터즈들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업체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권장하고 훼손된 안내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도로명주소 업무 성과와 중앙정부 정책 추진방



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내년 시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도로명주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정오 기자 jopark@

11월은 교통사고·감염병 주의

광주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 교통사고·고병원성 독감 등 빈번

광주시는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교통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지진 발생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가 최근 5년 간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11월에는 교통사고 및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조류독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확여행, 축제, 단풍놀이 등으로 단체 이동차량이 늘면서 대형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반드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차량 내 음주자무 등 소란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가금 사육농가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임산부·어르신은 독감예방접종으로 건강을 겨울나기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경미 시 안전정책관은 "감염병·가축질병·지진 대비에도 행동요령 사전 숙지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광주지역에서 북무중인 타 지역 출신 현역 군·경을 대상으로 '2019 제3차 빛고을 장병 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참가한 군·경들이 국립5·18민주묘지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타 지역 출신 군·경, 광주역사탐방 '빛고을 투어'

국립5·18민주묘지·양림동 방문 "광주의 역사·전통문화 이해도와"

광주시가 지난달 31일 광주지역에서 북무중인 타 지역 출신 현역 군·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제3차 빛고을 장병 투어'에 참가한 군·경들이 국립5·18민주묘지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는 육군 제31사단, 503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육군보병·공병학교

및 시 경찰청 소속 군·경 장병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됐다.

빛고을투어에 참여한 중사 이성준(32)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며 "광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에 좋은 이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타 지역 출신 현역 군인과 경찰에게 광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통합방위 유대강화를 위해 해마다

봄과 가을에 '빛고을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빛고을투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광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을 소개해 광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합동점검

광주시는 11월 한 달 간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미등록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교통약자 렌터카 대여 거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정승현 기자

"지역농협에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11월 가입 품목 매실 등 8개

전남도가 이상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이 가입기간인 매실, 무화과, 복분자 등 8개 과수 품목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디, 복분자, 무화과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유자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다. 특히 오디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영광, 장성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으로 가입 지역이 확대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천 180억 원이다. 10월 말 현재 7만 25농가가 11만 3천598ha를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Wedding

살기 좋은 집처럼 포근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몸에 맞는 옷처럼 편안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음을 행복해하던
저희 두 사람 이제 사랑으로
함께 가는 길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주시요.

김희도 · 손희순 의 장남 민성
김경 · 양미경 의 장녀 태희

전남도민일보 회장
전국기자협회장

11월16일(토) 낮 12시
올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 홀 1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핏줄
생강을 살립시다

전남도민일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전문

신용불량을 정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박연휘 법무사는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0건 이상을 처리 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중앙로 114(상무랜드피아 312호)
T:010-3643-0590 사무실:062)383-5118
FAX:062)443-0102 E-mail:same2866@daum.net

법무사 박연휘 사무소